여의도 하스팟

그린란드발 변동성 일단락에 무게

Analyst 하장권 research.ha@hmsec.com

관세를 상수로 취급하기 시작한 증시

지난 9일에 이어서 16일에도 시장은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예상했으나 다른 사안으로 발표되며 무산. 폴리마켓이 예상하는 IEEPA 관세 위법 판결 확률은 70%를 상회하며 사실상 시장은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이 위법으로 나올 시나리오를 상수로 받아들이는 중

한편, 대법원 관세 판결 앞두고 관세 환급 권리를 거래하는 이른바, 관세 환급권 거래가 성행하는 중. 실제 미국 완구업체 키즈2는 최근 한 헤지펀드에 9월까지 납부한 관세 1,500만 달러의 청구권을 넘기고 200만 달러를 선불금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음. 알려진 바로는, 현재 펜타닐 관세 환급 청구는 기존 환급금의 대략 16%, 상호관세 환급 청구권은 27%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는 중.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거나, 혹은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환급까지의 소요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표출된 가격

실제 트럼프도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관세 협상 체결 대상 국가가 미국을 대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시장 중론이 자리잡고 있는 중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다음은 그린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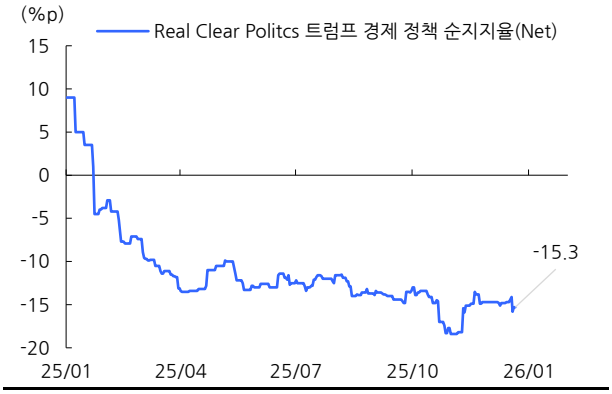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이어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이번엔 그린란드 확보를 전면화하며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 트럼프는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명분으로 아시아-유럽을 잇는 북서항로를 쟁취함과 동시에 희토류 확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입장. 이에 덴마크 주도로 그린란드에서 Operation Arctic Endurance라는 군사훈련이 진행됐으며, 참여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총 8개국의 NATO 동맹국

이에, 지난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린란드 매입 요구에 반하여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2/1부터 기존 관세율에서 추가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발표.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관세는 유지될 것이며, 6/1부터는 추가 관세율을 25%까지 인상할 것이라 언급

1) 아직 대법원에서 IEEPA 관세의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2) 같은 NATO 국가의 적극적 대응이 동반되고 있음. 또한, 3)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월 이후 최저 수준의 트럼프의 지지율과 이번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공화당의 빈약한 지지 등을 고려했을 때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명분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오히려 일단락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공산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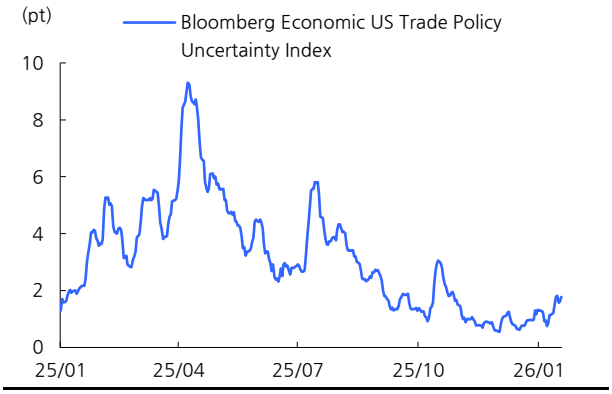
현 시점에서는 지난 자료**(1/9 [여의도 하스팟] 4Q25 어닝 시즌 기점으로 본격화될 순환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익 단으로 지수 상승 탄력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어닝 시즌 기점으로 본격화될 순환매 장세에 대응할 것을 권고

〈그림1〉 트럼프 지지율은 최저점 부근인 가운데,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2〉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중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하장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